할머니 사랑

홍 은 희/중앙일보 논설위원

내겐 잊을 수 없는 얼굴이 하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그리운 얼굴. 자그마한 체구에 은비녀로 단아하게 쪽을 진 외할머니다. 이마에서 시작해 눈썹, 눈, 볼, 코, 입, 턱까지 얼굴 구석구석을 모조리 더듬으며 뽀뽀를 해대면 "아이고, 그만해라."하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정작 얼굴 가득 웃음이 넘쳐나곤 했던 기억이 새롭다.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가 눌러 앉은 외갓집에 다니러 간 어머니가 성화에 못 이겨 세 살배기였던 나를 놓아두고 온 이래 할머니는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나와 함께였다.

난방 시스템은커녕 난로의 불기마저 제대로 없을 정도로 궁핍했던 60년대, 화롯불을 피워 와 나의 책상 밑에 놓아 둬 단 한번도 발이 시려본 적이 없었던 겨울이며, 등교길에 데리러 온 친구들의 도시락을 모두 모아 따뜻하게 김을 들여 점심시간이면 머리에 이고 오시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위해 내가 한 일이란 대학졸업 후 사회인이 된 다음에도 갈래머리를 하여 머리를 빗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였다.

두메 산골에 사는 외할머니와 도시의 아이로 자라난 손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집으로'가 장안의 화제다. 켄터키프라이드치킨과 영계백숙의 간극만큼이나 좁혀질 수 없게 보이던 '문명의 충돌'도 할머니의 가없는 사랑에 맥을 추지 못하고 손자와 할머니는 숙명의 인연만큼이나 굳건하게 맺어짐을 보여주는 영화다.

한 논문에 따르면 할머니가 계신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에 빠질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고 한다. 부모에게 질책을 당했을 때 할머니로부터 위로를 받아 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이나 원한을 지니지 않게 된 까닭이라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몹시 괴롭고 힘들 때엔 '지금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하고 상상하곤 한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할머니라면 '네가 그렇게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을 확신하는 까닭에 나는 새롭게 힘을 내어 다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불행하다. 이런 절대적인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방학 동안의 사나흘, 아니면 주말에 잠깐 들러 그나마 TV와 벗한 채 할머니와 이렇다 할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돌아오기 일쑤다. 어느 사이엔가 숙명의 인연을 맺은 '피붙이'라기 보다 '손님'이 돼버린 손자들과 할머니 사이에서 서로의 정을 확인하기란 너무나 힘겹기만 하다.

60대 노인들은 '손자기근'시대를 맞고 있지만 지금의 10대들은 '할머니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흔히 어머니의 사랑처럼 무한하고 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챔피언 급은 아마도 할머니가 아닐는지. 할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이 가엾기만 하다.